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2021년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동향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2021년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동향 1

국제금융시장 5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9

2021년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 (choikoex@kdb.co.kr)

-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s는 연간 글로벌 벤처투자 데이터를 집계한 'State of Venture 2021*'를 지난 1월 12일 발표함
- ◆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1년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금액 증가, 유니콘의 급증,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투자자 유형의 변화 등이 나타남

* 'State of Venture' 보고서는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관련 데이터를 지역별, 국가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보고서로, 매분기 발간됨

□ '21년도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금액 증가, 유니콘 급증,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투자자 유형의 변화 등이 나타남

- 보고서는 '21년 모든 지역에서 스타트업 투자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혁신자본(innovation capital)이 글로벌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21년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구분	내용
투자금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U\$2,940억달러 → '21년 U\$6,210억달러 (111%↑) • Mega-round(건당 U\$1억달러 이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U\$1,400억달러 → '21년 U\$3,610억달러 (148%↑) • 투자단계별 기업가치 상승률(중간값 기준, yoy) : 중기 120%, 후기 112%
유니콘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유니콘 수 : '20년 569개 → '21년 959개 (69%↑) • 핀테크 스타트업의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콘 4개 중 1개가 핀테크 스타트업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연간 투자금액의 21% 차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에 대한 투자건수가 미국을 추월하며, 전체건수의 36%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중기, 후기 모든 투자단계에서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유니콘이 드물었던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유니콘이 대거 배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10개, 인도네시아 4개, 베트남 2개, 태국 2개 등
투자자 유형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중은 감소하고, 자산운용사의 투자비중은 증가 • M&A Exit 건수가 58% 증가 →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증가 의미

□ 스타트업 투자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1억 달러 이상 'Mega-round'의 증가와 건당 투자금액이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

- 전 세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U\$6,210억달러(약745조원)로 전년도의 U\$2,940억달러(약352조원)보다 111% 증가함
- 'Mega-round*'를 통한 자금조달규모(U\$3,610억달러)가 전년대비 2.5배 증가하면서, 투자규모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 스타트업이 한 번에 U\$1억달러(약1,200억원) 이상을 조달하는 딜
 - Mega-round가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48%에서 '21년 5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투자보다는 잘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대형딜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규모 및 Mega-round 투자규모

(단위 : U\$억달러)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증감
Mega-round(a)	1,400	3,610	+2,210
전체 투자규모(b)	2,940	6,210	+3,270
a/b	48%	58%	

자료 : CB Insights('22.1.12), "Stage of Venture 2021"

- 투자건수*는 3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56% 증가
 -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건수 : '20년 26,500건 → '21년 34,647건 (31% ↑)
 - ** 건당 투자유치액 평균값(average) : '20년 U\$16백만달러 → '21년 U\$25백만달러 (56% ↑)
 - 건당 투자유치액 중간값(median) : '20년 U\$3백만달러 → '21년 U\$5백만달러 (67% ↑)
- 건당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가치(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초기·중기·후기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가치가 상승하였고 중·후기 단계*의 기업가치는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함*
 - * 투자단계별 기업가치(중간값) 상승률(% , yoy) : 중기 120%, 후기 112%

투자단계별 기업가치 및 건당 투자규모

(단위 : 백만달러)

투자단계	기업가치			건당 투자규모		
	2020	2021	상승률	2020	2021	상승률
초기	18	28	56%	2	3	50%
중기	147	324	120%	20	30	50%
후기	524	1,112	112%	27	50	85%

주 : 기업가치는 중간값(median), 건당 투자규모는 평균(average) 기준

자료 : CB Insights('22.1.12), "Stage of Venture 2021"

□ 유니콘 수가 급증하였으며,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이 배출됨

- 유니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창업생태계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개수는 '20년 569개에서 '21년 959개로 69% 증가함
 - '21년 한해동안 517개의 새로운 유니콘이 배출되었으며, 보고서는 이처럼 많은 유니콘이 배출된 것에 대해 후기단계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콘 4개 중 1개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해당함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투자규모의 21%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핀테크 분야 유니콘의 증가로 이어짐
 -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 : '20년 U\$490억달러 → '21년 U\$1,320억달러 (169%↑)
 - '21년 새롭게 배출된 유니콘의 약 27%*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해당*
 - * '21년 신규 유니콘 업종별 비중 : 핀테크 27%, 인터넷SW&서비스 23%, 이커머스&Direct-to-Consumer 9%, AI 7%, Health 5% 등 (CB Insights, '22.1.17자 Unicorn List 기준)

□ 투자건수에서 아시아 지역이 미국을 추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간 유니콘이 드물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유니콘이 배출됨

- 투자규모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50.1%)을 차지하나, 투자건수 기준에서 아시아 지역이 미국을 추월하며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함

아시아/미국의 투자건수 및 투자규모('21년 기준)

구 분	투자건수		투자규모	
	아시아	미국	아시아	미국
'21년	12,485건	12,281건	U\$1,760억달러	U\$3,110억달러
전체대비 비중	36.0%	35.4%	28.3%	50.1%

자료 : CB Insights('22.1.12), "Stage of Venture 2021"

- '21년 4분기 투자건수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은 초기, 중기, 후기의 모든 투자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초기투자는 후속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향후 아시아 스타트업 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투자단계별 각 지역 투자비중('21년 4분기, 투자건수 기준)

투자단계	미국	아시아	유럽	기타 국가	전체
초기	30%	37%	23%	10%	100%
중기	37%	45%	13%	5%	100%
후기	33%	39%	21%	7%	100%

자료 : CB Insights('22.1.12), "Stage of Venture 2021"

- 아시아 지역 중 그간 유니콘이 드물었던*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새로운 유니콘을 배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의 확대, 모바일과 인터넷 침투율의 증가, 디지털화 추세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싱가포르(10개), 인도네시아(4개), 베트남(2개), 태국(2개), 필리핀(1개), 말레이시아(1개)에서 새로운 유니콘이 나타났으며, 특히 싱가폴은 전체 유니콘 12개 중 10개가 '21년에 배출됨**
 - * '20년 국가별 유니콘 수 : 싱가포르 2개, 인도네시아 2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없음
 - ** 동남아시아 유니콘 통계는 CB Insights의 '22.1.17자 Unicorn List 기준임
 - Nikkei Asia('21.10.15)는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의 부상에 대해 “중산층이 확대되며 모바일과 인터넷 침투율이 증가했고, 팬데믹으로 인터넷 경제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고,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22.1.13)는 팬데믹 이후 아시아 스타트업이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사의 비중이 증가했고, M&A Exit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부문의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남

- '21.4분기 투자건수 기준 투자자별 비중은 벤처캐피탈 30%, 자산운용사* 10%, PE 7%이며, 최근 벤처캐피탈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자산운용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자산운용사(Asset/Investment Management)는 비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달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모두 투자하며, 헤지펀드 등이 이에 해당함
 - ** 벤처캐피탈 비중(% , 건수기준) : 34%('19.4분기) → 33%('20.4분기) → 30%('21.4분기)
 자산운용사 비중(% , 건수기준) : 6%('19.4분기) → 8%('20.4분기) → 10%('21.4분기)
 - 투자규모*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치열해졌음을 의미함
 - * 건당 투자규모(중간값) : 자산운용사 '20년 U\$23M → '21년 U\$30M (U\$7M ↑)
 벤처캐피탈 '20년 U\$8M → '21년 U\$12M (U\$4M ↑)
 - M&A를 통한 Exit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는데, M&A의 증가는 기업부문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해졌음을 의미함
 - * M&A Exit 건수 : '20년 6,833건 → '21년 10,792건 (58% ↑)

□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투자동향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제약의 한계가 줄어들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스타트업 투자동향에도 변화가 나타남
 - 아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증가, 기존 스타트업 허브 외에 새로운 지역의 성장, 기업부문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등은 국내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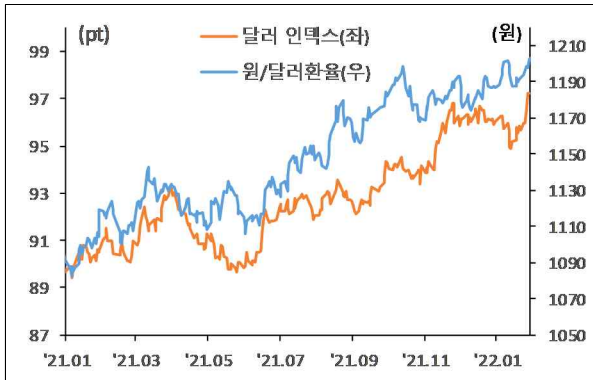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천 경 원 (cheonkw@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인 FOMC의 영향으로 급등, 2월에는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 등으로 보합세 예상
- ◆ **(금리)** 1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 속에 기준금리 상승 가시화로 전월말 대비 상승,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 **(주가)** 1월 주요국 증시는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축 우려로 하락세 지속하다 월말 반등 시현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연출, 2월 주요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이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전망으로 전월대비 변동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인 FOMC의 영향으로 '20.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 2월 환율은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동향)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인덱스*가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1.27일 97.251)을 기록하는 등 달러화 강세 시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등 긴축행보를 계속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대비 달러화 가치
 - 1월초 공개된 12월 FOMC 회의록에 대차대조표(B/S)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로 시장내 경계감이 지속
 - 1월 FOMC(25~26일) 이후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1년 6개월만에 달러인덱스가 최고치를 기록
 - * 연준의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기존 금리인상기(2015년)와 달리 고용시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있으며 B/S 축소는 종전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행보가 계속*
 - * 영국의 경우 12월 금리인상에 이어 2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캐나다는 3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며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통화정책회의시 물가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예고, 기존의 완화적 입장에 변화
- (국내 동향) 위험회피심리 확산,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환율이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1.14일) 등으로 1월 중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매파적인 FOMC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확산,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의 순매도세로 전환 등으로 1월말 '20년 6월 이후 최고치(1.28일 1,205.5원)를 기록
 - 전년동월 대비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점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 억달러)

구분	21년				22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480	557	604	607	553
수입	444	538	574	612	602
무역수지	36	19	30	△5	△4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전망) 원/달러 환율은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에 따라 추가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
- * 파월은 1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모든 FOMC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가능성과 금리 인상폭이 50bp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시장내에서 금리인상 속도 및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
- 원/달러 환율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불확실성에 대한 선반영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기재부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것 임을 예고(2.3일), 이러한 조치가 환율시장에 반영되며 안정화 예상
- 다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횡보세를 예상

환율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56.4	1,086.3	1,188.8	1,205.5	+1.41%
달러 인덱스	96.479	89.927	95.649	96.625	+1.02%
달러/유로	1.1219	1.2217	1.1376	1.1236	△1.23%
엔/달러	108.66	103.26	115.10	115.08	△0.0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1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 속에 기준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며 전월말 대비 상승,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동향) 1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통화정책의 긴축 우려를 민감히 반영하며 약세(금리 상승) 시현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8% 레벨을 돌파하여 1.87%(1.18일)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25~26일 FOMC 이후 경계감 일부 완화와 월말 견조한 수급 영향으로 1.7%대에서 마감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안 고조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와 ECB의 정책 스탠스에 촉각*을 세우며 약 3년 만에 플러스 금리를 기록하며 월말 마감
 - * ECB는 12월 의사록에서 '일시적 물가 상승' 논리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재확인하였으나, 시장은 물가 상승 지속 등 감안시 ECB도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미 국채시장 움직임에 동조하였으며, '16.2월 이후 최고 금리인 0.178%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
- (전망) 주요국 국채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1월 FOMC 이후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나 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긴축 속도 및 경기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될 전망
 - BOE(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타 중앙은행들의 긴축행보 가시화 될 경우 시장의 긴축 경계감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요인이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지는 등 수급상황은 견조할 전망으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1.9175	0.9132	1.5101	1.7767	+26.66bp
독일채 10y	-0.1850	-0.5690	-0.1770	0.0110	+18.80bp
일본채 10y	-0.0110	0.0210	0.0710	0.1780	+10.7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1월 주요국 증시는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우려로 하락세 지속하다 월말 반등 시현, 2월에는 주요 기업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는 전월대비 안정적인 전망

○ (동향) 1월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1.5일 최고가 경신* 이후 통화긴축 전망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하다 월말 크게 반등하였으나, 전월말 대비 하락 마감

* 다우지수 : 36,799.65(1.4일), Stoxx50 : 4,392.15(1.5일), Nikkei225 : 29,332.16(1.5일)

- 미 증시는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로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하였으나, 1월 FOMC의 예상범위 테이퍼링 일정 확인에 따른 안도와 월말 기업실적 호조 등을 반영하며 강하게 반등하여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

* 다우지수: 7.2%▼ 36,799.65(1/4)→ 34160.78(1/27), 나스닥: 14.5%▼ 15,622.72(1/4)→ 13,352.78(1/27)

- 유로Stoxx5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독일 4분기 GDP 역성장*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월말까지 이어지며 하락 마감

* 연방통계청(Destatis)은 독일의 4분기 GDP가 코로나19 변이 확산 및 예방조치 강화 등에 의해 0.7%(qoq) 감소했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발표 (1.29일)

- Nikkei225 지수도 미 증시와 대체로 동조하며 큰 폭의 변동성 장세 시현

○ (전망) 2월 주요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이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전망으로 전월대비 변동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1월말 강한 반등세로 인한 투자심리 호전 및 견조한 주요국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시 2월은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밸류에이션 하락이 재연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

· 코로나 변이 확산 영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추이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 및 위험자산 선호 위축 등으로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 상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28,538.44	30,606.48	36,338.30	35,131.86	△3.32%
유로 Stoxx 50	3,745.15	3,552.64	4,298.41	4,174.60	△2.88%
Nikkei 225	23,656.62	27,444.17	28,791.71	27,001.98	△6.22%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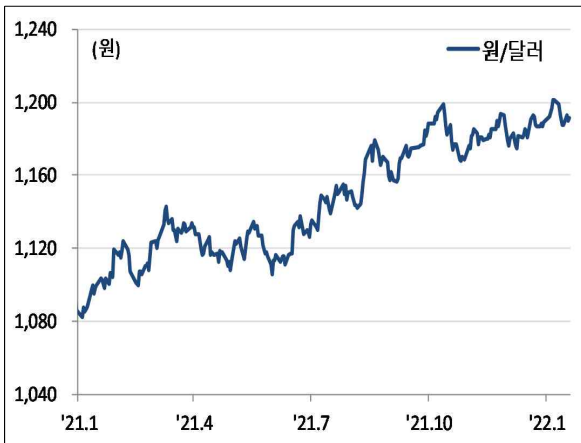
(담당자 : 환율 - 천경원, 금리·주가 - 장명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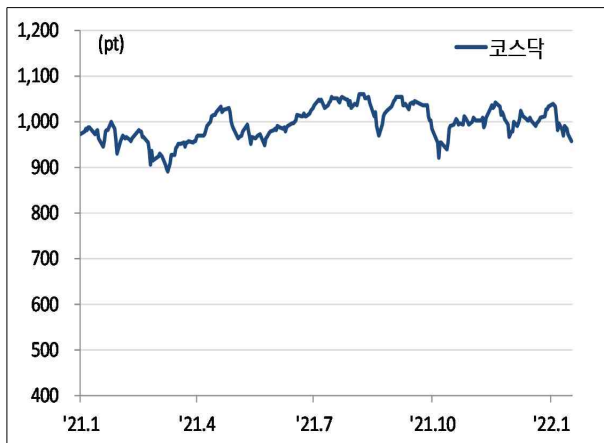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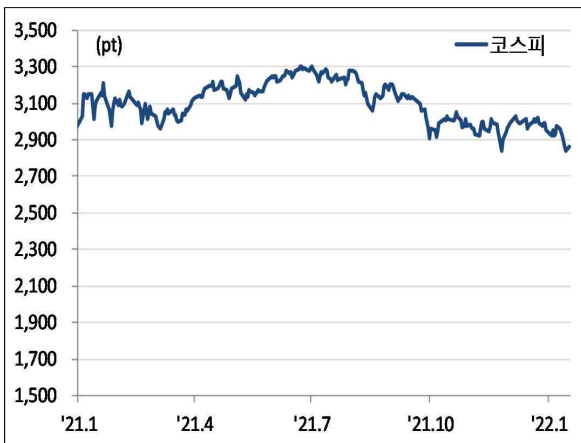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2.194% (0.5bp ↑), 신용스프레드 54bp (5.4bp ↓)



환율 원/달러 1,197원 (8.5원 ↓), 엔/달러 115.19엔 (0.05엔 ↓)



주가 코스피 2,750.26pt (3.26% ↑), 코스닥지수 902.87pt (3.44%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63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